

보도시점

2026. 8. 5.(수) 10:30

배포

2026. 8. 4.(화)

기후부 제1차관, 남부지역 주요댐 가뭄 현장 점검

- 밀양댐, 운문댐 가뭄 단계에 진입한 댐 현장 점검
- 각 댐의 가뭄 현황과 대응 경과, 추가적인 용수 공급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5일 오전 금한승 제1차관이 밀양댐(경남 밀양시 소재)과 운문댐(경북 청도군 소재) 가뭄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남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용수공급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각 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한승 제1차관은 8월 2일자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밀양댐을 먼저 방문하여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감량 등 그간 밀양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수 추가 취수 방안 등 추가적인 가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난 7월 15일부터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인 운문댐을 찾아 낙동강 및 금호강 대체취수 등을 통한 댐 용수 절감 현황을 점검하고, 운문댐과 연계된 금호강 도수로 시설을 방문하여 향후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수로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가뭄 상황에도 주민들에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남부지역의 가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차질없이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밀양댐, 운문댐 현장점검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장화영 (044-201-7157)



□ **현장 점검개요**

- (목적) 밀양댐, 운문댐의 가뭄 상황 지속에 따른 댐 운영 현황 및 가뭄 대응 방안 점검,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논의
- (일시/장소) '26. 8. 5.(수) 10:40~14:50 / 밀양댐(경남 밀양시), 운문댐(경북 청도군)
- (참석) 기후부(1차관 등),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 (점검내용) 밀양댐,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경과, 향후 대응방안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40~11:10	30'	■ 밀양댐 시설 및 운영현황 점검	
11:10~11:40	30'	이동(밀양댐 → 오찬장)	
11:40~12:30	50'	■ 오찬	
12:30~13:20	50'	이동(오찬장 → 운문댐)	
13:20~13:50	30'	■ 운문댐 시설 및 운영현황 점검	
13:50~14:40	50'	이동(운문댐 → 금호강도수로 취수장)	
14:40~14:50	10'	■ 금호강도수로 현장점검	